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4년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 의정활동 성과공유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학생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학생의회 의정 성과 공유

전북교육청, 성과공유회 열어... 학생의회, 대입 상담지원 활성화 등 10건 제안

지역별 학생의회도 학교 와이파이 환경 개선·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등 제시

전북학생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4년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 의정활동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는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의정활동을 공유하면서 학생자치 강화 및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강동화 의원, 전북학생의회 및 14개 시군 학생의회 의장, 협력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덕암정보고 댄스팀 '언홀리(UNHOLY)'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했다. 언홀리는 지난해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 우승팀이다.

이어 △전북학생의회 추진 경과보고 △전북학생의회 및 지역학생의회 의정활동 성과 공유 △의정활동 피드백 및 소통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학생의회는 올해 임시회 3회·정기회 2회 등을 개최해 △대입 상담 지원 활성화 △교내 등·하교 펜스 설치 △도내 통학버스 인원 초과 탑승 제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10건의 정책을 제안, 전북교육청은 2025년 예산에 이를 모두 반영했다. 지역별 학생의회도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학교 와이파이 환경 개선(전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학교(익산), 정읍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정읍), 진로 및 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원주) 등을 제안했다. 전주학생의회 이원빈 의장은 "성과공유회는 서로에게 영감과 동기부여

가 되는 자리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학생의회 김무빈 의장은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학생 자치 미래가 더욱 분명해지고, 그 주체가 학생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학생의회 오현서 의장은 "성과공유회는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학생의원들도 20만 전북학생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전북 학생들을 대표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준 학생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의정활동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부안 교직원수련원에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부안 교직원수련원에서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참석해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유·초·중·고 교육활동과 연계한 '개인 기부단'과 '유학생 기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문학·음악·미술·체육·인성·의료·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가나 퇴직 교원, 대학 교수 등으로 꾸려지는 개인 기부단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심리정서 등에서 봉사하고 있다. 또 유학생 기부단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도내 각급 학교를 찾아 교육 기부와 자국 전통문화 소개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기부단 운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지원과 성장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시군자원봉사센터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남궁행원 센터장은 "전북의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교육자원봉사센터 구축으로 학생과 일반봉사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4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결과 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결과 보고회' 및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담당자 및 현장지원단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 △학교별 우수 사례 및 성과 발표 △분임별 토의 및 현장지원단 컨설팅 등이다. 특히 전북대학교사범대부설고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 업무담당자들과 개별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교육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분임별 토의도 진행됐다. 업무담당자들은 주제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별 중점 운영 과제를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연구·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모델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중점 운영 과제를 수행해 왔다"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대학 동반성장 견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 전북 라이즈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 선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사진)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1회 라이즈위원회에서 공동 라이즈(RISE) 위원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선임을 통해 양 총장은 전북지역 대학과 산업,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혁신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라이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인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 실현



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학이 단순히 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산업과 기술 혁신의 허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 총장은 "대학은 단순한 지식 생산 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대를 포함한 전북 지역 대학들이 협력해 다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혁신의 시작은 대학과 산업의 연계에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지평선고, IB DP 후보학교 되다

도내 고교 중에서는 최초... 전북 8번째 후보학교 승인

김제 지평선고등학교가 도내 고등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8개교가 IB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대안제일 특성학교 등학교인 지평선고는 '지평선을 넘어, 새로운 배움'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도서관 중심 학습, 인문학적 사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천해왔다. 이번 IB DP 과정 후보학교 승인은 이러한 교육적 철학과 비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IB DP 과정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연구 능력,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IB 프로그램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 이를 통해 지평선고는 세계와 연결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 고등학교 가운데 최초로 IB DP 과정 후보학교로 승인된 지평선고는 IB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수업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IB DP 인증학교(월드스쿨)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수업·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평선고가 전북 고등학교 최초로 IB DP 과정 후보학교로 승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IB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IB 수업·평가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8일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에서 캠퍼스 드로잉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캠퍼스의 아름다움, 회화 통해 널리

전북대, 캠퍼스 드로잉 공모 23개 우수작 시상

'건지광장 문화루 풍광' 그린 이우철씨 '대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8일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에서 캠퍼스 드로잉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대가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캠퍼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회화 작품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전북대 캠퍼스의 사계절 변화, 풍경, 행사 등을 주제로 한 유화, 수채화, 색연필화, 판화, 묵단화 등 모두 77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에 따르면, 교수 등 미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두 23개 작품을 선정했다. 예예의 대상에는 '건지광장 문화루 풍광'을 그린 이우철씨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캠퍼스 둘레길'을 그린 이수연씨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우철씨의 '건지광장 문화루 풍광'은 전북대의 랜드마크인 건지광장 문화루를 그린 작품이다. 백제 문화 건축양식인 하양식 기법의 우

아한 처마선과 연못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 힘차고 시원한 분수와 물살계류가 어우러지는 전북대 캠퍼스의 생동감을 화폭에 담았다. 또한 이수연씨의 '전북대 캠퍼스 둘레길'은 건지산 둘레길에 있는 편백나무 숲길을 순수한 자연의 풍경으로 표현했다. 수직으로 뻗은 편백나무를 통해 하늘로 치솟는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명품 공간으로서 캠퍼스를 재조명했다. 전북대는 이날 수상자들을 대학에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대상에 500만원, 최우수상에 300만원, 우수상 5개 작품에 각 100만원씩의 상금과 전북대 총장상을 수여했다. 수상작 중 12개 작품을 선정해 2025년도 대학 달력에 실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수상작은 오는 20일까지 전북대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에서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20일 농산촌 초등생 초청 '미리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은 오는 20일 윤봉·인월·산내 초등학생과 가족을 초청해 '미리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 가족 키즈왕, 캐럴 부르기, 풋볼 명상' 등 가족의 단합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동체 활동과 링·볼록·카드 마술공연, 풍선 묘기를 선보이는 벌룬쇼 등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기념품과 선물도 제공된다. 강양원 원장은 "농산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문화 활동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작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가족 사랑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통해 지역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3학년생 교과목 연계 자선 행사 열어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3학년 학생들이 교과목과 연계한 자선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단 Togethe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러닝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모금된 677,200원을 덕진노인복지센터에 전액 기부하고,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은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대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이 돋보였다. /장은성 기자



신산업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사업추진 회의

전주비전대학교 이차전지신산업전문대학사업단은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박요식 사업단장을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김철현 교학처장,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최영규 사무총장, 다산이엔지 주용권 기술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치유농업과,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가 '2025년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주기전대학은 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 '녹색치량전' 발업을 위한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귀촌 심화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전 연령대의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대면 학습,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실습 위주의 현장 학습으로 총 80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비의 70%는 국비지원이며, 교육과정은 내년 2월 8~23일 1기로 시작해 총 6기까지 진행된다. 각 기수마다 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장은성 기자